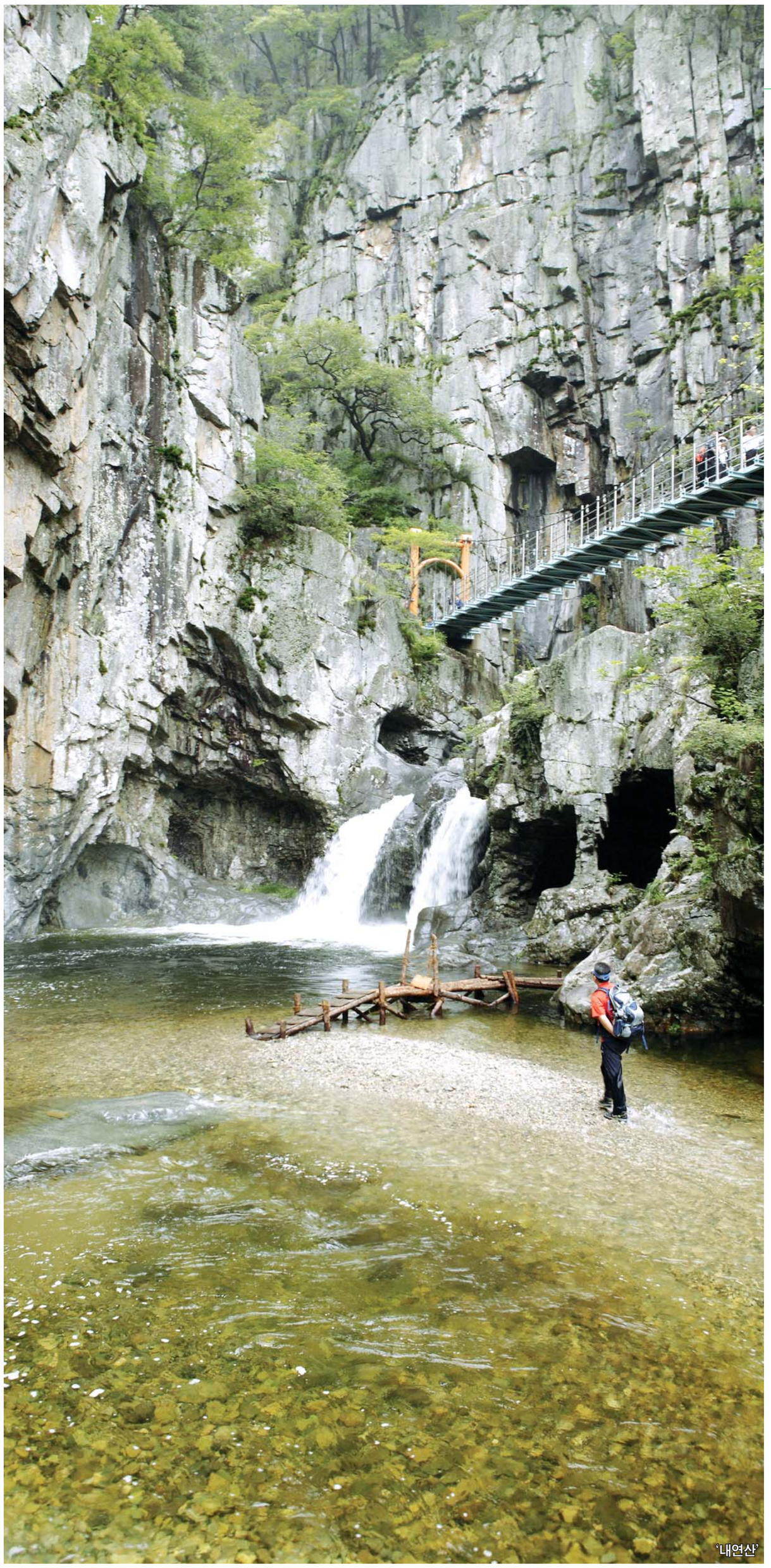
'내연산'

기차여행

'향수를 부르는 기차여행, 맛은 덤이요!'
기차에는 향수가 있다. 어딘가로 향한다는 가슴 설레는 기다림도 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추억과 이야기를 남겼던 기차역에서 여름 낭만을 만들어보자. 볼거리와 먹을거리까지 더해진 기차여행,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한 8월의 여행이다.

해변으로 계곡으로 설레임 싣고 갑니다

◇750리 경전선 철도가 시작되는 곳, 삼랑진역

자동차로 3시간 30분이면 갈 거리를 장장 6시간 동안 시속 50km의 속도로 달리는 열차가 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유일한 철도노선 '경전선열차'이다. 밀양 삼랑진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가는 동안 창원, 마산, 진주, 북천, 횡천, 하동, 광양, 순천, 벌교, 보성, 화순 등 경상도와 전라도의 크고 작은 역들을 지난다.

경부선이 개통되던 해인 1905년에 영업을 시작한 삼랑진역에는 1920년대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의 흔적인 급수탑도 마스코트처럼 남아 있다.

추억을 거슬러가는 이곳에 또 다른 재미가 있다.

두드리면 종소리가 나는 만어사의 바위는 보고 또 보아도 신기하다. 조선후기 걸작으로 손꼽히는 영남루에 올라 시원한 밀양강

시속 50km…철길따라 낭만여행

유적지 둘러보고 별미로 배채우고

볼거리·먹거리에 무더위 싸악~

전망을 즐기고, 나라에 위급한 일이 닥칠 때면 땀을 흘린다는 표충비와 원효대사가 건립한 표충사를 둘러본 후 차가운 계곡물에 발도 담가 보자. 표충사 계곡과 기회송림은 캠핑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이왕이면 4, 9일 열리는 장날에 맞춰 가서 장터의 명물인 찹쌀도넛과 어묵, 선지국수도 맛보자. 밀양 별미 돼지국밥도 건너뛰면 서운하다.

◇동해남부선 포항역, 바다와 계곡을 함께 즐긴다

동해남부선은 부산진역에서 시작해 해운대역, 송정역, 태화강역(구 울산역), 불국사역, 경주역 등을 지나 포항역에 닿기까지 동해안의 남쪽 해안지역을 달린다.

짧게나마 바다를 보며 달리는 구간이 있어 국내에서 가장 낭만적인 철로로 불리기도 한다. 동해남부선의 역 가운데 송정역은 역사가 운치 있고, 역에서 내려 2~3분만 걸어가면 하얀 백사장이 멋진 송정해변이 기다리고 있어 여름철 인기가 높은 역이기도 하다.

종착역인 포항역은 포항 여름여행의 시작이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죽도시장은 경북 최대의 재래시장. 억세지만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를 들으며 시장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재미가 여간 쏠쏠한 것이 아니다. 포항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보면 북부, 월포, 칠포 등 해변이 잇따라 나타난다.

포항 '물회'

북부해변은 카페와 레스토랑, 횟집 등 유흥시설이 밀집해 있어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해변이다.

폭포 전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내연산 계곡 트레킹도 즐겨보자. 장쾌한 물소리가 한여름 무더위를 잊게 해준다. 출출할 때 포항에서 맛보는 시원한 물회 한 그릇도 여름 더위를 싹 가시게 한다.

◇허리띠 풀고 떠나는 '장항선' 예산 여행

삽다리 '곱창'

90년 역사의 장항선은 충남의 평야지대를 덜컹거리며 가로지른다. 장항선 열차가 지나가는 예산의 예산역, 삽교역 일대는 소담스럽고 배 두둑한 여름 관광지로 알맞은 곳이다. 어느 역에서 내리든 예산의 고요한 호수, 오래된 고택과 사찰, 맛집 골목들이 어우러진다.

삽다리 곱창, 광시 한우, 수덕사 더덕산채정식 등 다채로운 먹을거리를 '장항선 예산여행'에서 만날 수 있다. 예산역 남쪽의 예당국민관광지구는 '고요하고 느린' 예산이 숨쉬는 곳이다.

예당호, 봉수산, 느린 꼬부랑길과 함께 광시 한우는 한적하고 풍족한 휴식을 돕는다.

삽교역에서는 김정희의 생가인 추사고택, 맞배지붕의 목조 대웅전을 지닌 수덕사 등을 둘러보기에 좋다. 삽교역 인근의 삽다리 곱창과 예산 특산품인 더덕으로 만들어낸 수덕사 앞 더덕산채정식 역시 예산 여행을 더욱 든든하게 만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삽교역'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아리랑하우스의 여름특선메뉴
삼 계 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 25,000원~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1등맛집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